

김정일 행정법 강의계획서

“정확한 기출문제풀이와 최신판례 및 주요사례 정리를 토대로
중요이론을 정리하고 핵심논점을 확인하며,
행정법 정선사례 풀이를 통해
올바른 사안포섭과 사례해결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강의!”

■ ■ 담 당 **김 정 일** 변호사

- 사법시험 제40회 최종합격
- 現) 법무법인 백범 변호사

■ ■ 강의일정 2019년 11/26(화) ~ 12/13(금), 총 16회

■ ■ 시 간 [오후 실강반] ※ 실강반에도 필기자료를 제공합니다.

- 1) 시험이 없는 날 : 1시 40분 ~ 5시 50분
 - 2) 시험이 있는 날 : (시험) 1시 ~ 2시 / (강의) 2시 10분 ~ 5시 50분
- ※ 개별 질문 및 답안지 상담 : 매일 저녁 6시 ~ 7시

[당일 저녁영상반]

- 1) 시험이 없는 날 : 6시 40분 ~ 10시 50분
- 2) 시험이 있는 날 : (시험) 6시 ~ 7시 / (강의) 7시 10분 ~ 10시 50분

[익일 오전영상반]

- 1) 시험이 없는 날 : 8시 40분 ~ 12시 50분
- 2) 시험이 있는 날 : (시험) 8시 ~ 9시 / (강의) 9시 10분 ~ 12시 50분

■ ■ 강의교재 1. 주교재 : 행정법정선사례집 1, 2(제본집, 무료제공)

기존 행정법연습에서 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들과 최근 5년간 5급공채,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기출 문제들 및 대학모의고사에 출제된 문제, 김연태, 박정훈, 박균성 교수님의 사례집에 있는 중요문제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입니다. 이 정선사례집만 여러번 반복하면 시험장에서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작년판에 비해 추가된 문제와 협의의 소의 등 변경된 해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의 사안포섭을 자세히 검토하시길 당부드립니다.

2. 행정법 사례풀이방법 및 핵심쟁점자료(무료제공)

기존 자료를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2순환 기간동안 이 자료를 반복하시면 행정법 사례풀이는 완벽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3. 최신판례 정리자료

최근 5년간 기출문제는 모두 판례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주목하시는 출제가능한 판례들의 논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사안포섭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장담하건대 이 자료에서 2020년 5급공채 시험문제 중 한문제이상은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실제 이 자료에서 2019년 5급공채 1문이 출제되었습니다).

■ 강의특징

1. 사례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행정법의 모든 쟁점을 사례화하여 정리한 '행정법 정선사례'를 활용하여 **사례문제의 쟁점을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학습합니다.
2. 최근 5년간의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자료를 제공합니다. 중요도 높은 기출문제들에 대한 쟁점별 해설을 통해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분설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검토와 사안포섭'을 중점적으로** 연습합니다.
3. **최신판례와 주요판례 정리**를 통해 행정법 주요내용을 점검하고, **암기할 부분과 이해할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여** 학습합니다.
4. 최근출제경향과 최신판례 등을 적극 반영한 주 3회 진행의 **복습형 실전모의고사로 실전감각을** 제고하고, **자세한 풀이와 강평을 통해** 답안구성과 작성에 대하여 집중합니다.
5. **강사가 직접 수강생들의 답안을 참고**하여, 수강생의 입장에서 답안 작성 시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답안작성 관련 중요한 사항은 수업시간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정확한 이론의 정리 및 다양한 사례풀이와 더불어 **답안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언도 지속적으로** 진행합니다. 매일 강의 종료 후 1시간동안 **1:1 개별 질문과 답변 및 답안지 상담**을 진행합니다.

■ 강의목표

이번 강의의 첫 번째 목표는 사례문제에 대한 논점을 빠짐없이 파악할 수 있는 능력습득입니다. 이는 **전면적으로** 개정된 행정법사례풀이방법 및 행정법핵심쟁점자료를 2순환 기간동안 4번만 반복하여 보시고 강의시간 동안 사례문제를 같이 풀어봄으로써 가능합니다.

두 번째 목표는 **효율성**입니다. 1차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강의시간에 집중하는 것만으로 복습 없이도 행정법 중요사례를 완벽하게 풀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할 것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고득점 답안작성방법**입니다. 이는 판례문구의 정확한 분석과 학설의 논거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 등에 의해 가능합니다. 출제가능한 중요쟁점에 대하여 기존 책에 서술되지 않은 내용을 강의시간에 필기를 통해 정리하여 65점 이상의 답안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강의와 차원이 다른 새롭고 완벽한 강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9년 5급 공채시험에서도 입증된 것처럼 제가 강의시간에 강조한 내용이 그대로 시험문제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시켜드릴 것입니다.

■ 강의중심

2순환에서는 기본강의나 예비순환, 1순환을 통해 다져온 행정법의 중요내용을 복습하면서 사례문제를 위주로 강의하고 답안작성을 반복적으로 하여 실제 시험장에서 고득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올해 초부터 5급공채 시험을 준비하신 수험생들은 아직 행정법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분들은 행정법 사례풀이방법과 행정법 핵심쟁점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어 행정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강의시간에 하는 강의내용에 집중하여 답안작성요령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법전반에 대한 이해가 확립되어 있는 수험생들은 2순환 모의고사 문제 뿐만 아니라 행정법정선사례집에 있는 사례문제들에 대하여 직접 답안지를 작성하고 강의시간에 하는 강의내용 중 사안포섭 및 학설과 판례의 정확한 이해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번 2순환은 강의시간에 행정법정선사례집에 기재되어 있는 사례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도록 강의함과 동시에 기존에 평면적으로 배웠던 학설과 판례에 대하여 제대로 된 이해(고득점할 수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강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강의는 사례문제풀이(90%), 학설 및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10%)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수년간 5급 공채 시험에서 입증된 것처럼 1,2,3 순환 모의고사 및 사례풀이에서 푼 문제들이 그대로 시험장에서 나오는 바, 이번 모의고사문제(1주일에 2번 출제)는 최신판례를 사례화하거나 최신 대학모의고사를 입수하여 내년에 꼭 출제될 수 있는 문제로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례풀이
강의(2순환)의
중요성

최근 9년간 5급공채,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에서 행정법 문제는 모두 사례문제로 출제되었으며 과거와 달리 분설형 문제로 출제된 것이 특징입니다. 분설형 문제란 이미 문제에서 대략적인 논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예컨대 ‘위 사안에서 청문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었는가?’라고 물어보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분설형 문제는 논점 파악이 쉽기 때문에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물론 2015년 5급공채 시험문제처럼 ‘잔여지수용’이라는 평소에 공부하지 않은 부분이 출제되면 그에 대한 답안작성은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행정법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 수험생들 간의 점수 차이는 큼니다. 이유는 학설과 판례에 대한 이해도, 답안작성방법 등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학설과 판례에 대한 이해도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컨대 의무이행소송 인정여부에 대하여 부정설은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 침해를 논거로 들고, 긍정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러한 내용을 암기해서 답안지에 현출하는 것과 ‘행정처분은 법원이 아닌 행정청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를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이라 한다. 그런데 당사자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나 부작위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이 허가라는 처분을 안 하겠다는 판단권을 1차적으로 행사한 것이다. 따라서 의무이행소송을 맡은 법원이 이러한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 행사에 대하여 복잡적으로 심리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복잡적 소송인 항고소송의 본질에도 어긋나지 않고 법원이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을 대신 행사한 것이 되지 않아 권력분립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라고 답안작성을 하는 것은 엄청난 점수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시험은 암기력 테스트가 아니라 행정법의 학설과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여 사안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답안작성방법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컨대 제3자인 재단법인이 환경오염을 야기 시키는 사업계획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적격충족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에 대해 수험생 대부분의 답안내용은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안포섭에서 ‘사안에서 사업계획승인처분의 근거법규나 관련법규가 재단법인의 사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한 답안지와 ‘사안에서 재단법인은 자연인이 아닌 바 환경상 피해를 입을 수 없다. 즉, 재단법인이 소음이나 진동, 대기나 수질오염으로 피해를 받는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해 사업계획승인처분으로 원고인 재단법인이 침해받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또는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는바 재단법인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한 답안지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출제교수님들 입장에서는 후자 답안지에 대하여 고득점을 줄 것입니다.

결국, 계속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분설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설과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답안지에 현출시키는 부분인 ‘검토와 사안포섭’을 설득력 있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학습하고 숙달하는 기간이 바로 2순환입니다!

진도별 강의내용(진도별 핵심논점)

강의회차	날짜	강의내용
■ 제 1 회	11월 26일(화)	행정법의 전체체계, 행정법 사례풀이방법 I
■ 제 2 회	11월 27일(수)	행정법 사례풀이방법 II
■ 제 3 회	11월 28일(목)	실질적 의미의 행정, 통치행위, 법률유보의 범위, 행정법의 일반원칙 (비례, 평등, 자기구속, 신뢰보호, 부당결부금지, 신의성실, 실권의 법리), 행정법의 효력(소급입법 및 소급적용금지원칙), 행정법 법원 상호간의 관계,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기준과 구별실익,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공무수탁사인
■ 제 4 회	11월 29일(금)	공권의 확대화경향(제3유형에서의 원고적격충족여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적극적 공권(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 행정행위발급청구권),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사법심사가능성, 행정법관계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사인의 공법행위의 적용법리, 하자의 효과, 신고,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
■ 제 5 회	11월 30일(토)	행정입법(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 제 6 회	12월 2일(월)	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 행정행위의 종류(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과 구별실익, 판단여지, 허가, 특허, 인가, 공증, 제3자효적 행정행위)
■ 제 7 회	12월 3일(화)	부관의 종류 및 한계, 부관에 대한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행정행위의 효력(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선결문제,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 제 8 회	12월 4일(수)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과 구별실익,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여부 및 그 정도, 하자승계, 하자의 치유와 전환,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 제 9 회	12월 5일(목)	공법상 계약,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행정계획, 행정의 자동결정, 행정절차법(처분절차, 절차상 하자가 독자적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
■ 제 10 회	12월 6일(금)	정보공개제도,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직접강제,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조사, 과징금과 부과금, 명단공표, 관허사업제한
■ 제 11 회	12월 7일(토)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해석과 관련된 학설과 판례,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선택적청구권인정여부, 이중배상금지, 국배법과 자배법과의 관계, 국가배상법 제5조의 요건해석 및 제6조에 관련된 학설과 판례
■ 제 12 회	12월 9일(월)	손실보상 전반, 행정심판
■ 제 13 회	12월 10일(화)	행정소송I
■ 제 14 회	12월 11일(수)	행정소송II
■ 제 15 회	12월 12일(목)	행정소송III
■ 제 16 회	12월 13일(금)	행정법각론 전반

항상 행복하시고 꼭 합격하시길 기원 하겠습니다.